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가정    제목 : 다윗의 가정    성경: 역대상3장1-9절

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2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솔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3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4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다스렸으며

5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7 노가와 네벅과 아비아와

8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9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라 (대상3:1-9)

### 다윗의 결혼생활

-다윗은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그 인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파국이 불어닥침.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되며 많은 상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에 크게 감동되어 골리앗과의 싸움에 용감하게 나가게 됨.

-첫 번째 결혼 계획의 무산됨.(장녀 메랍과의 결혼이 무산됨. 아마도 제일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임. 그러나 부요한 후보들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함.)

-빙물로 말미암은 고통. 사울이 많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함.

-다행히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됨. 사울왕은 이것을 빌미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함.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왕의 사위가 되는 방편으로 사용함.

-다윗에게 있어서 이 미갈과의 결혼은 합법적인 왕권도전을 의미했음. 그는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기쁨부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마음으로 결혼하게 됨.

-그러나 결혼생활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함. 결국 사울의 만행으로 방랑생활을 하게 되고,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가게 됨. (후에 다시 되찾게 됨. 왜냐면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임. 100% 정략적인 사건이다. 여기에는 로맨스가 없다.)

-이로써 다윗에게 있어서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정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관계적 거래로 전락됨.

-다윗은 방랑생활을 하면서 여러번 결혼하게 됨. 대부분은 정략적임. 아히노암, 아비가일(나발의 아내-당시 다윗은 아비가일의 재산을 필요로 하였다.)은 유다 광야를 누비면서 만난 여인들로 생각되고 압살롬을 낳은 마아가는 그술왕 달매의 딸이다. 마아가와의 결혼도 다분히 정략적이었으며, 그 아들 압살롬은 왕의 수업을 그 어미 마아가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들의 성품으로 어머니를 가늠할 수 있다면 아히노암은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울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수 있다.

-아마 아비가일이 아히노암(사고몽치) 때문에 가장 많이 애를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경우를 잘 아는 여인이라,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잡혀갔지만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비록 그녀는 불운 하였지만,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아가는 정치적이고 치밀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에 아도니아(학깃의 아들), 스바다(아비달), 이드르암(에글라)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이들의 특징도 다분히 정략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유력한 집안들과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고,(사울왕이 큰 메랍을 그렇게 시집 보냈듯이) 아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아들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했다.

-그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비록 불륜이지만 그래도 정략적이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암미엘의 딸 밧수아(밧세바)였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정략적인게 더 낫다. 그의 진정한 사랑은 그러나 치정적인 사랑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둘도 없는 충신을 죽게 하고 만다.

-그가 수많은 난관을 만났어도 모두 헤쳐 나왔는데, 로맨스라는 늪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고, 단 한명이지만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리고 말았다.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자의 피를.(아마 나는 우리아가 스스로의 숙명적 죽음을 눈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됨.)

-이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는 칼날이 끊이지 않게 되는 저주가 시작됨. 압살롬은 최대의 정적 암논을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역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한 여인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 다윗과 밧세바는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네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밧세바는 네 아들을 얻게 되는데, 시므아와 소밤과 나단과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증언에 의하면 밧세바는 이 네 아들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철저하게 율법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밧세바는 원래 다윗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전부터 친

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이하게 밋세바는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엘리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 외에)

-밋세바는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 정치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결혼이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사랑과 가정과 사명과 충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다처제를 선호하였으나, 결국에는 일부일처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인 산물이요, 합리적인 것이다. 일부일처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순간 십계명에 충실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가문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만 역사에 남게 된다.

-무엇보다도 짝을 찾는 것이 단순하지만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된다. 개인적인 호불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맺어 주셨느냐가 더 우선적인 요인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짝 찾기가 된다. 짝짓기는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다. 즉, 이미 짝이 되었다면 반드시 숙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 숙제를 성실하게 하면 곧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된다.

-무엇이 숙명을 사명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뿌리가 되며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가정의 맥이 이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 그 가정이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진리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